총선 1년 앞두고 '제3지대론' 솔솔

평화당 초선들, 생존·개혁 정권 재창출 위한 대안 모색
선거법 개정안 바른미래 이견 커…협상 결과따라 연동

민주평화당 초선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를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초선 의원들은 현재의 구도로는 호남 정치의 미래는 물론 개혁 정권 재창출도 어렵다는데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초선 의원들이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는 방안은 '제3지대론'으로 결집되는 흐름이다. 현재의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점에서 창조적 파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평화당 초선 의원들은 제3지대에서 당 대 당 통합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다면 집단 탈당 등을 압박 카드로 내세우며 출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최근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중진 의원들이 양 당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국민의당 분당에 대해 양당 중진들에 대한 '책임론'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바른미래당 중진들은 분당을 계기로 당내 고위 당직과 국회 부의장 등의 따뜻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이제와서 통합을 외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중진 의원들이 나선다면 정치적 파급력도 좁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진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기 보다 초선 의원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제3지대를 통한 다당제 구축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평화당 초선의원들은 당내 공감대를 어느정도 마련한 상황이며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과 중도 성향 의원들, 당 밖의 무소속 의원들과의 소통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평화당 초선 의원은 "최근 일부 당내 초선 의원들과 논의를 했으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공감대를 마련했다"며 "이는 정치적 생존을 넘어 시대와 호남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3지대론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 트랙 협상 결과에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 트랙 상정에 대해 바른미래당 내의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 트랙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바른미래당의 분열이 불가피, 제3지대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평당 초선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 등 보수를 정체성으로 하는 과거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일부가 결국 탈당 등에 나서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 손학규 대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오는 8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전후해 제3지대론이 부상하지 않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4월 후반부터 7월까지 제3지대 창당을 구체화한 뒤, DJ 서거 10주년에 창당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평화당 초선 의원들의 행보가 희망사항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내 동력이 크지 않은데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동참, 호남 민심의 호응 여부 등 여러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철수 전 대표와 같은 대선 주자급 인사가 없다는 점도 제3지대 창당론의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평화당, 미래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3지대론은 정치적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인화성이 높다"며 "특히, 여권에 대한 민심 악화와도 맞물리고 있어 제대로 추진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탄력근로·최저임금 합의 불발

여야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놓고 이견…내일 처리 빨간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현격한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난항을 겪다 결국 파행했고, 오후 5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환노위는 추후 고용노동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 관련 법안의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3월 임시국회는 오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여야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려 했지만, 첫 쟁점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문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여야는 향후 열리는 고용노동소위에서 업종별 다양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를 주 52시간제 관련 보완 입법으로 논의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고, 한국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 산입을 삭제하는 방안을 거듭 요구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 논의를 해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했다"면서 "각 당 원내대표가 만나 일정을 잡던가 해서 계속 논의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美의회 한국연구모임 방한
문재인 대통령 면담할 듯

미국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CSGK) 소속 의원 8명이 이번 주 방한해 북핵 문제 등 한미 간 관심사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방한 일정과 참가 의원의 면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구모임을 운영하는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 관계자는 방문단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미 의회의 북한 관련 논의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 등 한반도 분단 현장과 한국의 주요 경제 현장도 참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FMC는 독일·일본·유럽연합(EU)에 이어 네 번째 연구대상 국가로 한국을 선정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협력을 얻어 지난해 2월 한국연구모임을 만들었다.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0명이 초기 멤버로 참여했으며, 현재는 상원으로도 확대해 양당의 상·하원의원 총 4명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4월 말 한국을 찾아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한미관계 발전을 논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꽃을 든 남자 신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각각 직원으로 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체부 박양우·해수부 문성혁 장관 취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성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3일 취임했다.

박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문화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문체부 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문체부 직원들에게 "문화, 체육, 관광, 종교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이 다시 뜨겁게 살아날 수 있도록 부지깽이 노릇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는 정책은 죽은 것이고, 그 조직 또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성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해운 재건과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대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해운 재건을 더욱 가속해 해운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통해 해운 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며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해운 산업을 개편하고,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적극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 방송가 '종횡무진'

공중파·종편 등 출연 프로마다 시청률↑…섭외 1순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정치권을 넘어 방송계에서 상종가를 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공중파와 종편, 라디오 등의 시사 프로그램은 물론 교양, 예능 프로그램까지 발을 넓히고 있는데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시청율이 고공 행진하고 있어 방송사 및 제작진들의 섭외 1순위로 부상하고 있다.

박 의원은 KBS-1TV '사사건건', MBC-R '심인보의 시선집중', YTN '노종면의 더뉴스',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매주 고정 출연하고 있다. 또 CBS-R '김현정의 뉴스쇼'의 〈월간 박지원〉 월 1회 출연, TV조선 '강적들', JTBC '썰전', MBN '판도라', 채널A '외부자들'에도 반 정기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KBS 1TV '오늘밤 김제동'과 MBC '마리텔'(마이리틀텔레비전)에 출연하기도 했다.

특히, 박 의원이 출연한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작년 4월 30일 남북정상회담 특집차 박 의원이 출연한 MBN 〈판도라〉는 제작 이래 최고 시청률, 일일 최고 시청률 기록한데 이어 역대 최고 시청률 4.96% 달성했다.

또 지난 달 4일 박 의원이 출연한 KBS1TV '오늘밤 김제동'의 시청률은 5.1%로 JTBC '뉴스룸' 시청률(4.9%)을 앞지르기도 했다.

박 의원이 지난 달 29일 출연한 '마리텔 시즌2'는 분당 최고 시청률 7%을 기록했다.

여기에 박 의원의 대정부 질의 유튜브 조회수(지난 2일 기준)는 1차 대정부 질의 79만5000회, 2차 대정부 질의 68만6000회로 148만 조회수를 넘어서고 있다.

박 의원이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상종가를 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국회 최고령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는데다 나이와 영역을 뛰어 넘는 특유의 재치있고 정곡을 찌르는 입담, 정치권 전반에 뿌리 내린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탁월한 정보력 등이 꼽히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 의원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박 의원에 대한 정치적 피로감을 거론하고 있지만 시대와 함께 하는 그의 치열한 삶의 방식은 정치권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 삼계면 죽림리 1536㎡ 백일홍·꾸지뽕나무 200여주있음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신안 자은면 한운리 해수욕장 접 1654㎡ 별장 등 적합 분할가능 평당65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음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해남 옥천면 산과 전 36625㎡ 농장 등 적합 은행 9천 매도 4천
• 영암 삼호읍 용당리 공업지역 6019㎡ 은행 2억3천 매도 4억2천
• 운암동 대형아파트 지하 205㎡ 사무실 등 다용도 교환가능 1억8천
• 영광 염산면 신성리 땅 3088㎡ 주택 95㎡ 유실수 100여그루식재 2억
• 서구 아파트단지 반지하노래방 265㎡ 룸7 교환가능 임대중임 4억7천
• 강진 성전면 월출산 밑 4차선 접 4630㎡ 대형 저수지 인근 요양시설 적합 5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접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옥적합 8억9천

상가건물
• 영광 염산면 바닷가 땅 2191㎡ 펜션 건물 2동 380㎡ 수영장. 매도 3억7천
• 충장로 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동구 지산동 땅 4732㎡ 건평 652㎡ 식당적합 18억
• 서석동 4층상가 조대 앞 땅 405㎡ 건평 919㎡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 중 12억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나주 남평읍 우산리 61111㎡ 지구단위 해서 아파트 적합 222억
• 장흥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 등 적합 원룸부지와 교환가능 4억7천
• 북구 용두동 6차선접 4899㎡ 물류창고 등 다용도 적합 45억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펜션 대지 2180㎡ 펜션3동 372㎡ 8억
• 나주 금천면 국도 접 주거지·대지·자연녹지 25714㎡ 은행 12억 매도 24억
• 북구 북동 금남로 5가역 대로접 중심상업지 364㎡ 사옥 등 적합 12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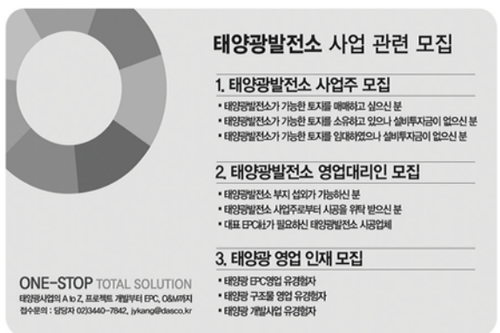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여수 땅, 급매

■ 여수시 봉강동, 대지 431평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
■ 대출-20억5천만원
■ 시세/감정가-약 40억
■ 모든업종 개발가능
■ 분할매매 가능
■ 매매 - 상담후 결정
주인직매. 010-3627-8282

다스코㈜ 세라코㈜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스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 사업타당성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화순
	신재생에너지	영업	· 태양광영업 경력자	
		R&D	· 전기공학 관련 전공자 (경력직)	
세라코	수질정화	설계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나주
	세라믹 (점토벽돌)	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R&D	· 요업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접수문의 : 담당자 061)370-2137, recruit@daesco.kr, 접수기한 : ~ 채용시까지